

5·18 문건 공개... 화염방사기 30대 사용

최경환 의원, 목록 등 2321건
‘5·18 사진첩’과 일부 문서
광주일보서 이미 공개한 자료
그날의 진실 규명 위해선
정부 새로운 자료 내놓아야



새롭게 공개된 보안사의 5·18 관련 문건에는 당시 '가용 가능 화염방사기 62대 중 30대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1980년 5월 18일 오후 광주시 금남로에 출동한 7공수 특전부대원들 중에도 휴대용 화염방사기를 등에 맨 부대원(왼내)의 모습이 보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9일 공개된 '5·18 사진첩 (13권)'에 이어 5일에는 보안사의 5·18 관련 비공개 문건 목록 2321건과 일부 문건 내용이 공개됐지만, 1980년 5월 그날의 진상을 밝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5·18 연구자들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 대부분이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2017년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에게 공개됐던 문건들이라는 점에서, 5·18 진실 규명을 위해선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온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안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생산·보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2321건의 자료 목록과 일부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 목록은 1979년 10월 26일 이후 보안사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한 5·18 관련 각종 문서 및 자료로, 전자파일과 종이문서, 마이크로필름, 사진첩, 5·18 정문회 영상 기록 등이다. 이번 자료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난달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공개된 주요 자료목록은 전남도경 상황일지,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 총정작전 기록사진, 육군항공여단 작전지원내용, 광주소요 종합보고, 소요진압 공중지원 방안연구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사태 분

석'과 '광주사태 상황일지' 등 일부 문건은 전분까지 모두 공개됐다.

'광주사태 분석'에는 화염방사기 30대를 사용했다는 내용과 '편의공작대'로 불리는 선무공작대 투입·운영 내용, 유사시 항공 지원을 기동타격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보안사가 감청과 정보요원, 편의공작대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작성된 '광주사태 상황일지'에는 5·18 당시 상황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시돼 있었으며, '무장헬기 해남 현지 급파', '폭도들이 선제 공격 시 무차별 사격하라'는 31사단장 명

의의 지시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헬기 사격 진압 의혹에 대한 보안사의 첩보수집 문건과 피터슨 목사의 헬기사격 검찰 증언을 듣고 전두환씨가 격노했다는 내용 등도 들어 있었다. 이 밖에도 5·18을 소재로 한 영화 '꽃잎'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동향 분석 문건과 5·18 관련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사전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도 함께 공개됐다.

최 의원은 "자료가 방대해 우선 문서 자료 목록 전체를 공개하고, 일부는 원본을 입수해 분석했다"면서 "자료 원본까지 받

아 분석하면 5·18 당시 계엄군 진압 작전과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의 전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5·18 왜곡·조작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2321건의 목록을 확인한 5·18 연구자들은 "과거 5·18 연구자들에게 여러 차례 공개됐던 문건들이라며 "5·18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겠지만,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5·18 연구자는 "국가기록원이라는 정부 기관을 통해 수천건의 자료 목록이 공개된다고 해 큰 기대를 했는데, 새로운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 5·18 4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5·18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무장관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 내정

청와대 - 검찰 갈등 국면
중단없는 검찰개혁 의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5일 오후 내정 소감을 말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미애(5선·61) 의원을 내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관련기사 3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닌 소신 강한 판사로서 평가받았다"며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신도 함께 진행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상황으로 정치적 중립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에는 문 대통령의 '중단없는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국 파동에 이어 하명 수사 및 검찰 무마 의혹으로 인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국면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뜻도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

회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중국 지원" 당부

靑서 왕이 중국무위원 접견
시진핑 주석과 만남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에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미 간 교착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발언과 이에 대한 북한의 '무력응대' 언급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

황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긴밀한 대화·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의 대화·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왕 부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고 인사한 뒤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화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무역마찰 등을 빚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무등경기장, 생활체육시설 리모델링 ▶2면

독감 주의보에 백신 없어 발 '동동' ▶6면

KLPGA 효성 챔피언십 오늘 개막 ▶20면



전라남도
JeollaNamdo

검색창에 **남도장터** 검색

www.jnmall.kr

친환경쇼핑 남도장터

전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국 1위

전남은
국내유일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

전남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1번지

'남도장터'는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한곳에서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전라남도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